

자사고 재지정 기준 80점 확정

도교육청, 평가표준안 바탕 내년 4~5월중 평가 진행

앞으로 전북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학교 운영성과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9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재지정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년도 평가대상 학교는 전주 상산고등학교 1곳으로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5년간의 학교운영 성과를 평가받는다.

평가대상 학교가 내년 3월까지 학교 운영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4~5월 평가단이 서류 및 현장실사를 거쳐 7월께 최종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평가지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한 평가표준안을 바탕으

로 하되, 시·도교육청의 재량권 비중을 확대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권취소 사유 및 감사지적 사항 등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수업·학생평가 개선을 위한 지표 5개 항목을 신설했다. 전·편입학 업무처리 공정성, 교실수업 개선 노력 정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전출·중도이탈, 교육과정 운영,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등 주요 평가지표에 대한 배점 기준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여건 및 교육감 직접사업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지표를 확대했다. 특히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얻었더라도 평가과정에서 학교의 부정행위 및 허위사실·회유 등 비리 발생시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19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었다.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점 70점은 일반고도 달성하기 용이한 점수로 자사고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소 80점

군산여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양향자 원장 초청 특강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박용범)는 지난 19일 시청각실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양향자 원장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양향자 원장은 상업고등학교 졸업 후 삼상전지에 입사해 삼상반도체 상무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노력 그리고 자신이 겪은 경험들을 진솔하게 이야기 하며 아이들에게 큰 감동의 시간을 선물했다.

"내가 하였습니다", "자신의 별명은 '고효녀'이다", "여러분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며 '일생(日生)을 일생(一生)처럼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목표를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며 10년후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기의 목표를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큰 힘이 되고 그 꿈을 이뤄가는 토대가 된다"고 말하며 아이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많은 사람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어 발표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자서에 아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 꿈을 꼭 이룰 수 있으리라는 격려의 말을 적어 선물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미원 교감은 "이번 특강을 통해 군산여상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어 보다 나은 자신들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협력에 남다른 노고 감사합니다'

도교육청, 유공자 표창 수여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지난 19일 시군자치단체와 교육협력에 노력한 교육청과 시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7명에게 '교육협력 유공' 표창 수여를 결정했다.

'교육협력 유공' 표창은 교육청과 도내 14개 시군자치단체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기회 확대, 방과후 교육지원, 교육혁신특구 운영과 급식비 지원 등 교육협력 사업에 각별히 노

력한 공무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타시도보다 앞선 초·중·고 무상급식 추진과정에서 시군자치단체의 예산지원과 원어민교사 지원, 지역인재 연수 및 장학금 지급, 학교시설 개선 등에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안정적인 교육협력에 남다른 노력을 펼친 익산시 반석인, 고창군 김미경, 임실군 김아연, 부안군 유지은 주무관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 4명에게도 표창을 수여한다.

이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활동 지원,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한 농농교류 확대, 우수인재 지원과 장학금 지원 등에 노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협력 유공자 표

창을 위해 지난 11월 추천안내를 각 시군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전달하고, 12월 5일까지 표창대상자를 접수했고, 12월 19일 전라북도교육청공직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대상 공무원이 현재 징계상대인 여부, 과거 수상사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수상에 문제가 없고, 업적이 분명한 대상자에게 상을 수여를 의결했다. '교육협력 유공자 표창'은 오는 12월말 각 교육청과 시군자치단체 중무실에서 수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이 '2018 전국 대학생 무역구제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무역 전문가 양성 교육 '탄탄'

전북대 GTEP사업단, 무역구제 경연대회 '우수상'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이 대학생 무역 구제 관련 최고 권위의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무역 전문가 양성 산실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 사업단 이성엽(무역 4년) 학생 외 26명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2018 전국 대학생 무역구제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사업단은 이 대회에서 8년 연속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번갈아 가며 수상하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

이 대회는 반딧핍 등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구제 방안을 연극을 통해 자웅을 겨루는 방식으로, 학생들은 지난 3개월 동안 꾸준한 연습한 것들을 펼쳐 보이며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사업단은 30여 명의 재학

생들을 1인당 4회 이상 해외 여러 나라에서 열리는 무역전시회에 파견, 중소기업 수출 상담을 지원하며 키운 무역 실무와 현장 능력이 이러한 대회에서 매년 수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성엽 학생은 "사업단 요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밤늦게까지 연습한 결과가 좋아서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며 "무역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사업단 활동을 통해 더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을 지도한 윤승원 명예교수는 "요즘과 같이 국제 무역 분야가 빈번한 시대에 무역실무 및 해외 마케팅 능력, 그리고 WTO나 FTA 협정 등에 관한 깊은 지식은 필수적"이라며 "8년 연속 수상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연습해 온 사업단원들이 대견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영화방송학과, 대국민 혁신제안 공모전 우수상

전주대 문지연·오재욱 학생(영화방송학과)이 '대국민 혁신제안 공모전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국민 혁신제안 공모전'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성장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진행됐으며, 254건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접수됐다.

영화방송학과 문지연·오재욱 학생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 대표 시장 약 40개소를 선정해 전국 시장지도(일명·장터열지도)를 제작해 배포하고, 시장을 방문해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 및 관광객들에게 시그니처 배지를 제공하여 흥미도 유발했다.

특히, 두 학생의 제안서는 소상공인

협회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기획한 아이디어로 수요자 측 만족도뿐만 아니라 SNS 마케팅, 기념품 제공 등으로 고객들의 구매욕과 재미도 사로잡아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문지연·오재욱 학생은 "이번 대국민 혁신제안 공모전은 영화제작 전공에서 배운 것처럼 소재를 설정하고 개발하는 전 과정을 거쳤다"며, "이세리 교수님의 창업마케팅 전공 수업에서 착안해 직접 전통시장을 찾아 현장을 느끼고, 상인분들을 취재하며 아이디어를 얻고 해결책을 제시한 결과,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전문가 협의회 개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일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읽기곤란(난독)으로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는 2016년 '전북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난독증 치료 전문가와 언어치료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공주교대 특수교육 전공 김윤옥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기전대 언어치료과 강진석 교수, 전북대 언어치료학과 김현기 교수, 전북대병원 재활의학과 김기욱 의사가 그들이다. 발음 중

심으로 난독 학생 지도를 수년째 하고 있는 전주용외초 김민숙 교사도 포함되어 현장중심의 실천적 난독 학생 교육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난독 학생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를 돌아보고 2019학년도 난독 학생 지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세밀한 조언과 정책 방향 협의가 주를 이룰 예정이다. 2018학년도 주요 성과는 난독증 진단검사 및 후속 지원, 난독 학생 지도용 교재·교구 지원(4종, 총3,252개), 교사 및 학부모 난독증 이해 연수(총 8회, 1,038명)와 난독 학생 담임교사 연수(2회, 300명) 등이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